

민주당 경선결과 따라 원 지사 연임여부 결정날 듯

6·13 지방선거, 누가 뛰나

(14) 제주지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는 벌써부터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호비방과 고발은 물론 SNS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 조사 등까지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1기 신구범(무소속) 도지사 이후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제주주는 일몰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이슈와 인물에 따라 여당과 야당 출신 도지사를 교체해왔다.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다가 지난 10일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제주도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원희룡, 배수의 진 치고 연임 도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6·13 전국지방선거 제주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의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의 탈당은 좀처럼 지지율 반등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지사연임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원 지사의 연임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대림 전 정



원희룡 제주도지사 바른미래당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

김우남·문대림 양자대결 압축, 15일까지 민주당 당내 경선

대립 전 청와대 비서관, 강기탁 변호사,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12일 현재 경선은 김 전 의원과 문 전

와대 비서관이 출마할 경우 원 지사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 지사는 문대림 전 비서관과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오차 범위 밖의 패배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문대림 전 비서관, 자유한국당 후보로 김항훈 전 부지사, 무소속으로 원희룡 현 지사가 출마하는 3자대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원희룡 지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우남 전 의원이 출마하면 3자, 양자대결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제주도지사 결과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남·문대림 양자대결 압축

당초 민주당 경선에는 김우남 전 국회의원, 문

대립 전 청와대 비서관, 강기탁 변호사,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12일 현재 경선은 김 전 의원과 문 전

비서관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TV토론회를 열고, 자신의 경쟁력과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공격했다.

김 전 의원은 문대림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우리의 상’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문 전 비서관은 “카피질러라는 장치로 김 전 의원의 정책 자료집을 검사해보니 33%에서 50% 중반까지 표절확률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역공을 퍼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가 참여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투표가 이뤄진다.

원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제주도지사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임자를 모색하고 있다.

윤정일 기자 yunji@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산 위해선 자금지원외 국민이해 증진 있어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친환경차 미래 정책 국제컨퍼런스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로빈 렌(Robin Ren) 테슬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사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데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조건으로 세금이나 구입비 보조 등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대,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친환경차의 미래를 위한 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Green Car for All’을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로빈 렌(Robin Ren) 테슬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친환경차 정책과 기업들의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로빈 렌 부사장은 기조강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차 확대의 조건으로 전기차 판매 의무화, 배출규제 등의 정책적인 측면(공급), 성능 측면에서 최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산업 측면(수요), 충전소와 자율주행 지원 등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인 지원과 기술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구매자의 선택권 확대 등의 요소도 언급했다.

이어 배터리 시장 및 기술 동향을 발표한 흥정익 LG화학 상무는 전기차를 사업초기의 1세대 형태와 현재까지의 2세대 모델, 앞으로의 3세대로 구분하고, 미래 전기차 시장은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프리미엄 모델과 차량 가격에 중점을 둔 500km 이하의 경제성 모델로 나

눌 것으로 전망했다. 흥 상무는 지금까지의 EV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 멀리 갈 수 있는지가 평가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100kWh 이상의 대용량 ▲20분 이내 충전으로 400km 주행 ▲경량화(차량 전체 무게의 20% 미만) 등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측 연사로 나선 제이 내글리(Jay Nagley) 자동차 투자 집단(Automotive Investment Organization) 연구개발 전문가는 연간 270만개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영국 자동차업체의 입장에서 전기차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 정부가 EV 기술개발을 위한 매칭펀드, 기금 등 3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영국은 EU 국가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부문 2위, 순수 전기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등 연구기관, G7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 포물리 원 등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자동차 솔루션 등이 EV 시장에서 영국의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담당자들과 민간 제조업체 관계자, 미국·영국·프랑스·노르웨이·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정부·기업 인사들이 참석해 각국 및 기업의 친환경차 보급 전략과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공유했다.

조정훈 기자 joh@

국제유가 고공행진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 약보합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폭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약보합세를 기록 중이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63원 하락한 리터(ℓ)당 1551.2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65.60원을 기록한 지난 2월 둘째주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도 1.45원 내린 1348.53원으로 지난 2월 둘째주 1361.41원을 기록한 이후 박스권에 머물렀다.

상표별 판매가격을 보면 최저가는 알뜰주유

소로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64원 내린 1515.31원, 경유는 전주 대비 1.53원 내린 1312.35원이었다.

최고가는 SK에너지로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88원 내린 1570.61원, 경유는 전주 대비 0.74원 내린 1368.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1639.1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1582.94원, 세종 1564.26원, 강원 1560.56원, 경기 1557.69원, 충북 1557.47원 등의 순이다.

다만 대구는 1523.3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면서 계속

신재생사업자도 출력·예측 정보 제공 책무

앞으로 제어 횟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관련 기준이나 보상체계가 아직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는 “전력거래소나 한전 입장에서는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와 예측, 평가,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는 제어 시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데 앞으로 보상 방안을 담은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pass System

22.9kV -y 3상4선식 배전선로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 고압협력회사 장비(공구) 확보기준 - KEPCO 배전계획서

■ 케이블 드럼장치 (IT풀링장치)



간접활선



직접활선



- 케이블절연(EPR) 특성 우수
- 접속부 완전 차폐로 안전작업
- 원터치 접속형으로 시공간편

- 3상 개별, 전체 구동가능
- 케이블보호시트 자동포설기능(300M)
- 차량배터리로 전원공급

- 절연스티크 간접 활선 가능
- 전주입상케이블 전선연결 스틱
- 작업거리확보로 안전

판매처

성전산업 (주)
SUNGJEON Co., Lt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4번길 9-30 2층
T. 031)420-6668 F. 031)423-8077 H. 010-4553-2554

(주) 평일
PYUNGIL Co., Ltd.